

6/22(수) 시편 80-85편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계약 갱신, 제의 기도문]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84편, **순례자들의 노래**에는 성전을 향하는 기쁨이 담겼습니다.

사모와 갈망의 마음이 아름다운 시로 표현되었습니다(84:2,10).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랍니다(84:11).

<행복송>을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84:4,5,12).

시인은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대해 노래합니다.

절기는 다시금 말씀을 <청종>하게 될 기회입니다(81:4-6, 8절).

하나님은 돌이킨 죄와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만,

계속되는 죄는 <과거의 역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81:14-15).

<반란의 역사를 계속할 것인가, 청종할 것인가? >(81:11-13, 95:7-8)

언약을 기억하고 갱신하는 것이 절기의 참 의미입니다(81:9-10, 출20:13 참고).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에게 <죽음>을 선포하십니다(82:7).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조형물들에게(합2:18-29, 출7-12장 참고)

공의와 정의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82:2-4).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배자의 삶**에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81:3,7,19)” 시인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폭력, 실패와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시인은 참 인자/신실/화평이 도래할 날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85:9-12, 강림절 시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❶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설렘이 있습니까?

❷ 참 예배자로서, 내 삶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❸ 각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시편3권 (73-89편)

편	유형	편	유형
73	지혜시편	82	제의 기도문
74	공동체 탄식시	83	공동체 탄식시
75	공동체 감사시	84	시온의 노래
76	시온의 노래	85	개인 탄식시
77	개인 탄식시	86	공동체 탄식시
78	구속사 시편(지혜시편)	87	시온의 노래
79	공동체 탄식시	88	개인 탄식시
80	공동체 탄식시	89	개인 탄식시(왕조)
81	계약갱신 제의문		